

히스패닉 사회의 이해

셋째마당 라틴아메리카의 독립

담당교수: 이재학

스페인 제국의 영광과 몰락

- Juana, la loca => 부르고뉴 공작 Felipe, el Hermoso(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)와 결혼 1504년 이사벨 여왕 사망 (남편 페르난도 왕은 1516년 사망) => 스페인의 분열 초래
- 후아나 => 남편의 불륜 목격 후 충격 => 1502년부터 정신착란 증세 시작 => 1504년 11월 까스띠야 왕위에 오름
- 페르난도, 딸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까스띠야 왕권을 가로채려 함

- 후아나,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지자 남편 펠리페가 거주하는 네덜란드로 감=> 페르난도 왕의 섭정 시작=> 1506년 펠리페 스페인으로 귀국, 장인에게 스페인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
- 펠리페와 까스띠야 귀족 연대,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에게 대항(까딸루냐인이라고 비하)
- 펠리페, 영국 헨리 7세와 조약 체결, 동맹 맺음, 까스띠야 귀족들의 지지=> 권력 독점=> 1506년 열병으로 급사=> 후아나 정신병 심해짐=> 1509년 Tordesillas 성에 유폐(1555년 사망)=> 사망시까지 까스띠야의 여왕으로 지냄



자료출처: 본인

- **까스띠야 왕국- 1510년에 페르난도를 왕국의 관리자로 임명=> 외교 및 이탈리아 문제에 전념, 내정은 추기경 시스네로에게 위임**
- **1516년 사망, 자신이 아끼던 둘째 외손자(스페인에서 성장)가 아닌 첫째 외손자(스페인어 구사 못함, 플랑드르인 우대)가 왕위 계승하는 것 마지못해 허용**
- **1516년 Carlos 황태자, 왕위 계승**
- **1519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사망=> 왕위 계승 (스페인 Carlos 1세, 신성로마제국 Carlos 5세)**



자료출처: Equestrian Portrait of Charles V (Titan, 1548)

- Carlos 황제, 생애 대부분을 스페인 밖에서 보냄
- 세속적 권력과 가톨릭의 정신적 권력을 접목시키려 함
- 스페인 내부의 반발, 수많은 반란
-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, 반란 주도 => 1525년 패배, Carlos 황제에게 포로로 잡힘
- 재위 1516-1556 : 유럽의 군주로 군림, 세계 최대의 제국 건설 (독일, 네덜란드, 나폴리, 시칠리아 섬, 사르디니아 섬, 북아프리카, 남북아메리카, 필리핀, 괌, 사이판)

- 교황 클레멘스 7세, Carlos 황제에 반감=> 1527년 스페인군 로마 침공=> 로마 약탈, 교황청 포위, 6개월 뒤 교황 석방=> 1529년 나폴리와 밀라노 왕위 계승
-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=> 신교도와의 성전=>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
- 1556년 스페인의 수도원에 은거, 사망
- 아들 Felipe 2세(1556-1598)- 스페인, 네덜란드, 프랑쉬 콩트, 밀라노, 나폴리, 아메리카 상속
- Carlos 1세의 동생 Ferdinand 1세, 독일제국 상속

- Felipe 2세, 부친과 달리 항상 스페인에만 머무름
- 프로테스탄트, 오스만 제국과 대립
- 1557년 1월 1일, 스페인 왕실의 재정파산 선언 (스페인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결과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의 재정이 파탄)=> 유럽의 일시적 평화
-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이 스페인 왕실에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음
- 오스만 제국 격퇴- 레판토 해전 1571년=> 지중해 패권 장악
- 포르투갈 왕위계승 문제발생, 내분=> 스페인군의 포르투갈 침공=> 1581년 4월, 펠리페 2세 포르투갈 왕에 등극
-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건설,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, 동시에 쇠퇴 시작

재정파산

- 국왕과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그 비용을 추후에 메꾸는 방식으로 재정운용
- 급전 필요할 때 상인들에게 대출 받음
- 대출금 상환 위해 다시 대출 받는 악순환 반복
- 1556년 7월에 Felipe 2세 즉위시 1561년까지의 정부 수입이 전부 저당 잡힌 상태
- 지속적인 전쟁 수행 위해 거액의 단기부채를 고리로 빌리는 행위 반복- 제국 내 국유지나 광산, 특정 사업 운영권이 상인의 수중으로 넘어감
- 이자율 강제로 낮추거나 파산선고 이외에는 해결방법 못 찾음
- 1560년, 스페인의 파산선고- 차입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단기부채를 연 5%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(juros)로 강제 전환
- 스페인의 파산선고 반복(1575, 1596, 1607, 1627, 1647, 1653년)
- 1660년대에 이르면 정부 수입 중 70%가 이자 지급용으로 사용, 원금은 정부소득 10년치에 해당

영국과의 전쟁

- 영국 메리1세 사망(펠리페 2세 부인이자 고모, 11살 연상)
-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- 로마교황청과 결별, 영국 성공회 수장 공표
- 펠리페 2세의 청혼- 거절 “나는 영국과 결혼했다”
-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쟁, 스페인의 봉쇄조치로 네덜란드와의 무역에 타격, 양모와 방직품 수출입 못함
- 해적왕 드레이크 등장(세계일주 성공)
- 1570년을 전후해 잉글랜드 북부에서 가톨릭 귀족들 반란,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참수 => 스페인, 전쟁 선포

- 1588년 스페인의 영국 침공 => 무적함대 패배 (드레이크, 칼레항 돌출부에서 스페인 무적함대 공격)
- 1596년, 펠리페 2세, El Escorial에서 사망 => 막대한 부채 남김
- 스페인 황금시대 종말
- 펠리페 3세 왕위 계승- 게으르고 향락 즐김
 - ⇒ 잔존하던 무어인 275,000명 아프리카로 전원 추방
 - ⇒ 무어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파산
 - ⇒ 종교재판소 존립 위태로워짐

스페인의 자본축적 실패

- 막대한 전쟁비용,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,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은은 물가양등 초래, 유입된 은 중 극히 일부만 스페인에 남고 대부분 암스테르담 등의 금융시장으로 유입
- 16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금과 은으로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 자본축적(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금, 은 75%가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 은행에 축적)=> 서구 자본주의 발전 단초 제공, 서양의 동양에 대한 우위 시작됨

- 금융시스템 마비된 상태에서 막대한 은의 유입은 인플레이와 사치, 향락만 초래
- 은 유입은 역설적으로 스페인 제조업 발전을 저해,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초래
- 15세기 중반 스페인은 북유럽에 1만 7천개의 양모 수출 ⇔ 16세기 초 아일랜드 양모가 북유럽에서 스페인의 양모 대체, 스웨덴 철이 스페인 빌바오 철과 경쟁, 아메리카 실크 유입, 플랑드르의 디자이너들 스페인 의류 시장 석권, 프랑스인들 스페인의 유리와 실크 생산업 진출

- 스페인의 대아메리카 무역의 5/6가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채워짐
-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까지 Cadiz에 있던 84개 무역상사 중 스페인인이 경영하는 곳은 12개뿐이었음
- 30년 전쟁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=> 스페인 2류 국가로 하락=> '뼈만 남은 거인'

19세기초 스페인의 상황

- 1700년 11월 1일 죽은자의 날(el día de los muertos):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군주 Carlos II 서거 (백치군주)
- 프랑스 부르봉왕가 루이 14세의 손자 Felipe V 집권 (프랑스와 영국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=> 프랑스의 승리)
- 스페인 왕궁의 프랑스화(베르사이유궁 모방)
-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근대화 운동=> 스페인 민중봉기
- 18세기 계몽의 시대 (장 자크 루소) => Jovellanos, Goya
- 프랑스 혁명, 나폴레옹 집권

- Carlos IV , 왕비 María Luisa(La Parmesana)에 의해 조정<=> 연인 Godoy 재상 임명(1792, 당시 27세) (고도이 18세-왕비 34세) [슬라이드 4](#)
- 프랑스 혁명, 나폴레옹 집권
- 민중봉기, 황태자 Fernando VII 등극
 - => 나폴레옹 마드리드 입성
 - => Carlos IV, Fernando VII, María Luisa 납치
 - => 형 조제프 스페인 왕에 옹립
 - => [스페인 민중의 봉기 \(1808년 5월 3일의 총살\)](#)
 - => 나폴레옹의 실각
 - => 1814년 Fernando VII 재등극
 - => 계몽정신 무시, 절대왕정 재개

라틴아메리카의 독립

- 1808년-1810년 독립운동 시작
- 1824년경 거의 전 식민지가 독립
- 식민지에 불과 45,000명의 스페인군 파견하여 독립군과 대립
- 독립의 원인: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반도 침공, 프랑스 혁명, 미국의 독립, 식민지의 내적 갈등, Felipe VII에 의한 절대왕정의 재개
- 독립당시의 라틴아메리카 인종구성: 백인(스페인인 + Criollo) 20%

Mestizo 40%

인디오 30%

흑인 10%

• 19세기초까지 Criollo들 스페인 본국에 강한
혈연적 유대감 가짐

=> Criollo들의 스페인인들에 대한 불만고조,
나폴레옹 집권시 라틴아메리카 방치,

라틴아메리카 스페인 관료들의 전횡

=> 정치·경제적 이해관계 대립

=> 정체성 인식 시작, 독립운동전개
(peninsulares와 criollo들의 대립)

독립의 두 영웅

- Simón Bolívar(Venezuela)- 상류층 귀족(criollo), 파리 생활, 북에서 남으로 진군, 1828년 Gran Colombia 독재자로 취임, 1830년 Bogotá 포기, 47세에 사망,

슬라이드 8 (자유, 평등[criollo간의 평등])

- José de San Martín(Argentina)- 스페인군에 복무, 안데스 산맥 넘어 칠레 침공, 남에서 북으로 진군, 1821년 7월 Lima 입성, 인디오의 강제노동폐지 (군 정치 개입 반대)

=> criollo들의 반발

=> 프랑스 망명 , 프랑스에서 72세에 사망

- 1822년 Ecuador의 Guayaquil항에서의 대면=>
San Martín 낙향(통치체제에 대한 대립?)

라틴아메리카의 삼각구도

- 독립전쟁당시 criollo들의 군사지도자화
 - => 스페인 caudillo 전통의 부활
 - => 독립의 대가로 토지소유 늘어남
 - => 라틴아메리카의 질곡시작
 - => 대지주 + 군부 + 교회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창이 닫힙니다

**자료출처: Carlos IV of Spain and His Family
(Francisco de Goya, 1800)**



**자료출처: The Executions of the Third of May, 1808
(Francisco de Goya, 1814)**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라틴아메리카 정체성의 문제

- 독립 후 스페인 배척, 프랑스에 대한 끝없는 동경
 - => 파리를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마음의 고향으로
 - => 정체성 찾는데 실패
 - => 20세기 중반이후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의 '잃어버린 파라다이스(el paraíso perdido)'에 대한 동경
 - => 과거로의 회귀, 환상(ilusión)
 - => 끝없는 정체성의 혼란

- => 탈출구(해결점)가 없는 결점의 원 (el círculo vicioso)
- =>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모순 초래
- => 고질적 '책임의 전가 (내 탓이 아닌 남의 탓)'
- =>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외세에 대한 배척 및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잠식이라는 경제적 모순이 악순환 되는 요인이 됨
- => '남미병' (한국사회와의 비교)